

정치계절 맞아 대통령 영화 주목

‘누가 용의 발톱...’부터 ‘판도라’까지 화제 신랄한 풍자에 실화 논란 부르고 법적소송도

“한국영화 속에서 대통령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면 등장시키지 않고 싶다는 것이 창작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대통령을 멋있게 그리면 비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리면 (관객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영화 ‘판도라’를 연출한 박정우 감독의 말이다. 한국영화에서 대통령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90년대 들어 강우석 감독이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1991)를 내놓으면서 정치교과서 영화의 스타트를 끊는다. 이 영화는 여권 대권 주자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를 추적한 작품으로, 당시 금기를 깬 영화로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 들어서도 영화 속에 대통령의 모습을 담기는 쉽지 않았다. 실존 대통령을 다룬 작품들은 개봉 이전부터 많은 논란과 법적 소송에 휘말리곤 했다. 국민의 열원이 담긴 이상적 모습을 지닌 가상의 대통령을 그려 우회적으로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 실존 대통령 다룬 영화 = 송강호가 주연한 ‘효자동 이발사’(2005·임찬상 감독)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전속 이발사가 된 주인공(송강호)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실화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일었고, 일부 네티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 이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2006)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1979년 10.26 사건을 다룬 블랙 코미디영화다. 이 영화는 개봉 전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민씨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 법원은 영화 속 다큐멘터리 세 장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

건부 상영 결정을 내렸고, 이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2012년에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26년’(조근현 감독)이 화제였다. 5·18 희생자의 유족들이 시민 학살의 주범인 ‘그 사람’을 단죄하는 이야기다. 2008년 처음 제작이 시도됐으나 소재의 민감함 때문에 4년간 제작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시민을 상대로 모금하는 방식으로 제작비 일부를 마련해 촬영에 들어갈 수 있었다. 개봉 이후에는 손익분기점을 훌쩍 뛰어넘는 296만명을 동원했다.

‘변호인’(2014·양우석 감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사회적 정의와 이상을 추구하는 주인공은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며 1137만명을 불러모았다.

◇ 이상적인 지도자 그린 영화 = 국민의 열원을 반영해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그린 영화들도 속속 등장했다. 장진 감독의 ‘국모님 프레지던트’(2009)는 세 명의 대통령이 주인공이다. 퇴임을 앞두고 복권에 당첨된 대통령 김정호(이순재 분)와 외교적 수완이 뛰어난 데다 혼남인 대통령 차지욱(장동진 분), 최초의 여성 대통령 한경자(고두심 분)가 등장한다. 이 영화는 첫사랑 앞에서 소심한 젊은이, 위 김광 등 대통령의 정치인 면모보다는 인간적인 부분을 더 부각했다.

안성기·최지우가 주연한 로맨스 영화 ‘피아노 치는 대통령’(전만배 감독)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2012년 ‘26년’

▼2016년 ‘판도라’

◀1991년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

영화 ‘흥부’ 김주혁 캐스팅

정우(연흥부역)와 호흡 다음달 촬영 ... 내년 개봉

배우 김주혁(사진)이 사극 영화 ‘흥부’에 캐스팅됐다고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18일 밝혔다.

고전 ‘흥부전’을 재해석한 이 영화는 조선 현종 재위 당시 양반들의 권력다툼으로 백성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환란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김주혁은 이번 작품에서 어지러운 세상에 맞서며 백성을 돌보는 정의로운 양반 조력을 연기한다.

연흥부(정우 분)에게 깨우침을 주면서 그의 잃어버린 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아 배우 정우와 호흡을 맞춘다.

‘흥부’는 오는 5월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 2018년 개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홍진영·김영철 합작

‘파르릉’ 음원 공개

‘라디오스타’ 출연해 화제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만들고 개그맨 김영철이 부른 일렉트로트(일렉트로닉+트로트) 곡 ‘파르릉’이 20일 정오 음원사이트에 공개된다.

‘파르릉’은 홍진영이 지난 5일 MBC TV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 공개돼 누가 부르게 될지 관심을 모았다.

당시 홍진영은 개그맨 허경환에게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MC 윤종신이 김영철을 추천했다.

홍진영은 방송 후 해당 곡이 호응을 얻자 SNS에서 김영철과 허경환을 놓고 공개 오디션을 벌였고, 곡의 포인트를 잘 살려 부른 김영철이 낙점됐다.

김영철의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는 18일 “김영철과 홍진영이 2주 만에 노래 녹음과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마치고 음원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함께 녹음 중인 김영철(왼쪽)과 홍진영

음과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마치고 음원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파르릉’은 신나는 멜로디와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특징인 곡으로, tvN 드라마 ‘도깨비’의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를 작곡한 로코베리가 편곡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발)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이 쓰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스쿨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제57주년 4.19 혁명 기념식 4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재)	00 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아빠님 제가 모실게요)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자식통조림 55 데마스페셜 55 닥터 365
1	00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중국 아름다운 사람들 55 이웃집 찰스 (재)	00 속보이벤트 TV 인사이드(재)		
2	45 팔도방송 스페셜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25 구리가기 식사교실 55 프리파라 2	00 뉴스브리핑
3	05 시사기획 창 (재)	0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유지연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00 2017 한국인명방송대상 대상 수상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20 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5 날씨와 생활 10 교향전문록 남도에 살리라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7	00 KBS 뉴스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2017 대선 후보 KBS 초청 토론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00 수목드라마 (차재발광 오피스)	00 드라마 스페셜 (사임당, 빛의 일기)
11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00 KBS 뉴스 10 문화의 향기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빙하의 대어정 페로제도)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플라워링 하트(I)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웬스 08:00 당동명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엄마 까투리(재) 09:30 물랑	09:40 글로벌 애반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강민장짜개와 죽순부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국한직업(재)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기탐험대 15:20 마사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하이어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소(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16:45 당동명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로보카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어벤저스: 울트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20:50 세계테마기행 (광야의 축복 이집트 요르단)	- 인간의 길, 왕의 대로를 가다 21:30 한국기행 (오지라도 괜찮아 - 잠초같은 내 인생) 21:50 EBS 다큐 프리덤 (생과 사의 강 브라부트라 - 분노의 강, 잃어버린 지평선) 22:45 국한직업 (말레이시아 라텍스 공장)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EBS 초대석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 이야기 - 한국학자 마크 피터슨)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9일 (음 3월 23일 丙子)
子	48년생 별달은 없지만 무미건조하다. 60년생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조치해야 할 때가 도래 하였다. 72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다. 84년생 고지가 눈앞이니 용기백배 하여 목적을 달성하자. 행운의 숫자 : 88, 05	42년생 애대우면서까지 함께할 이유가 없다. 54년생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이다. 66년생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다. 78년생 판도가 갑자기 변해버릴 수도 있다. 90년생 실의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행운의 숫자 : 75, 02
丑	49년생 방법과 기교에 따라서 전면 달라질 수도 있는 판세이다. 61년생 희망적이고 알차게 진행 되리라. 73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살펴볼 일이다. 85년생 실상가상에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41, 83	43년생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단계이다. 55년생 장군한다면 참된 결론에 이른다. 67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상응하는 이치에 놓일 것이다. 79년생 먼 길 떠난 귀객 앞에 날이 저문 형상이다. 91년생 즉시 접어라. 행운의 숫자 : 03, 61
寅	50년생 부담스럽다면 가급적 조용히 피해 가는 것이 상책이다. 62년생 절실히 필요한 분야만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74년생 자율적인 것이 편하리라. 86년생 승세는 명약관화하니 그대로 유지 하라. 행운의 숫자 : 12, 97	44년생 노심초사하면서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백번 낫다. 56년생 광 대신 님이 지만 만족도는 괜찮다. 68년생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띠게 될 것이니 언행을 삼가라. 80년생 대단하다. 행운의 숫자 : 28, 93
卯	51년생 노파심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니 과감히 버려라. 63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의미가 있다. 75년생 무난한 하루가 진행될 것이다. 87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로 기쁨이 넘치리라. 행운의 숫자 : 58, 25	45년생 길일이나 복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57년생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시험대에 오를 필요가 없다. 69년생 크게 상관될 일이 아니니 개의치 말라. 81년생 연쇄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일취월장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5, 72
辰	52년생 재물이 특별히 좋으니 재수발원하여 보라. 64년생 가장 가까운 이가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다. 76년생 중차대한 일에 임했을 때 물꼬를 틀 수 있는 바이니 즉시 받아들이도록 해야겠다. 88년생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리라. 행운의 숫자 : 89, 67	46년생 주변의 충고를 수용한다면 해결점을 찾는다. 58년생 궁극적으로 기반을 공고히 하는 셈이 된다. 70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대로 행한다면 허자가 없을 것이다. 82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일관되어야 성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9, 22
巳	53년생 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65년생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 77년생 가장 건설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나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89년생 작은 불편은 보이나 결코 커다란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6, 42	47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셈이다. 59년생 상대의 마음 씀씀이가 자신의 심리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71년생 포괄적인 범위의 설정이 더 실효적이다. 83년생 이충성을 띠고 있으니 혼동할 수 있었다. 행운의 숫자 : 51, 04